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농업분야)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농업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6,698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농업은 15년 뒤인 2023년까지 연평균 6,698억원씩 생산 차질을 볼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69.6%를 차지하게 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1,811억원, 돼지고기 1,526억원, 닭고기 707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단일 품목으로 피해가 가장 큰 쇠고기는 국내 생산이 FTA 이행 첫해 205억원, 5년차에 671억원, 10년차에 2811억원 등으로 줄다가 현행 40%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차에 감소액이 3,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5년차에 각각 1,791억원

과 488억원, 10년차에 1,874억원과 996억원 정도 생산이 위축된다.

이밖에 유제품 504억원, 사과 369억원, 포도 361억원의 피해가 각각 추정됐다.

전체 농업 생산 감소는 발효 첫 해부터 5년째까지 연평균 2,825억원, 6~10년 7,412억원, 11~15년 9,856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은 15년간 4,21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측됐다.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피해 부문인 농업의 경우 작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간 연평균 8,70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5년간 6,698억원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 그 한 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서비스 분야에서 27만명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르면 5월 말쯤 11개 연구기관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보고서를 내놓는다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원문 중 '농업관련 분야의 효과'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서 게재한다(본 내용은 본회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협상결과 및 특징

〈협상 결과〉

- 협상대상 품목수 : 1,531개
- 쌀은 개방에서 제외, 나머지 품목은 관세양허 또는 쿼타 제공

### 2. 파급영향 분석방법

1) 분석모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KREI-ASMO 2006) 이용
- 모형은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

〈표 1〉 한·미 FTA 타결 주요 내용(축산분야)

품목	협상결과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닭, 냉동(가슴살, 날개) 12년 폐지</li> <li>•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 전란액 15년 폐지, 난황 12년 폐지</li> <li>• 종란 10년 폐지, 난백 5년 폐지</li> </ul>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총 6개 세번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발동</li> <li>- SG발동 물량 : 27만 → 36만톤(매년 6천톤 증량)</li> <li>- 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 → (6~10년) 75% → (11~15년) 60%</li> <li>• 육우와 식용 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은 등은 15년 폐지</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돈육 10년 폐지, 10년차까지 SG발동</li> <li>- SG발동 물량 : 8천250톤 → 1만3천938톤(매년 복리 6% 증량)</li> <li>- 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 → (6~10년) 75% → 50%(매년 5%씩 삭감)</li> <li>•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 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2014년 1월 1일에 폐지(7년 폐지와 유사)</li> <li>• 소시지는 5년 폐지</li> </ul>
낙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5천톤, 매년 복리 3% 증량)</li> <li>• 혼합분유 10년 폐지, 조제분유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700톤, 매년 복리 3% 증량)</li> <li>• 밀크와 크림 10~15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함량 60%이하 15년 폐지</li> <li>- 기타 지방함량 60%초과 12년 폐지</li> <li>- 냉동크림 지방함량 60%초과 10년 폐지</li> </ul> </li> <li>• 치즈는 체다 10년 폐지, 나머지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7천톤, 매년 복리 3% 증량)</li> <li>• 버터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200톤, 매년 복리 3% 증량)</li> <li>• 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10년 폐지, TRQ 물량 제공(3천톤, 매년 복리 3% 증량)</li> <li>- 사료용 즉시 폐지</li> </ul> </li> <li>• 유당 5년 폐지</li> </ul>
기타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 냉장육 10년 폐지, 냉동육 12년 폐지</li> <li>• 산양, 면양고기 10년 폐지, 칠면조 고기 7년 폐지</li> <li>• 녹용, 녹각 15년 폐지</li> </ul>

\* 본 내용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게재된 내용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축산분야의 FTA협상 결과 내용을 추가한 것임.

# 한·미 FTA와 육계산업

망부문, 재배업 전망부문, 축산 전망부문, 그리고 총량 전망부문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부문모형임(〈그림 1〉 참조).

## 2) 분석 방법

- 기준 추정치(baseline)를 먼저 추정하고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타결 결과 추정치를 추정해 그 차이를 한·미 FTA 영향으로 평가
- 기준 추정치(baseline) : 한·미 FTA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까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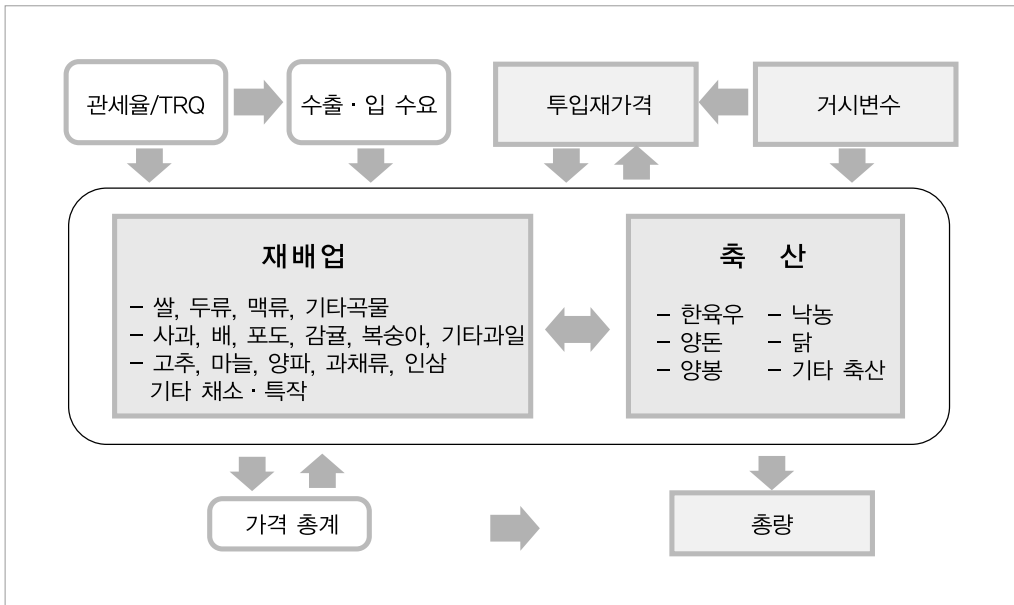
- 기존의 정책변수와 농업부문 변화 추세(생산, 고용 감소 등)는 기준 추정치에 반영

- FTA 타결 결과 개별 품목의 양허내용(관세율, TRQ, ASG 등)을 외생변수로 모형에 적용해 생산액 변화 계측
-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 3. 모형의 특징과 한계

- 대체효과 반영 :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간의 대체효과, 미국과 기타 국가 간의 수입산 대체 효과를 고려하도록 방정식 체계를 설계

〈그림 1〉 모형 구조



- 쇠고기, 과일, 과채류의 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 가공식품 미반영 : 모형 내에 가공식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가공식품(제과, 당류, 면류, 주류, 음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음.
  - 과일 농축액, 주스 등 신선 농산물과 관련이 깊은 1차 가공품은 생과일로 환산해 분석에 포함.

#### 4. 분석 범위

- 분석에 포함된 품목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생산액 합계는 농업 총생산액(35조원)의 91%를 차지
- ASG : 과일(사과),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곡물(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곡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특작(인삼, 참깨, 땅콩)

〈표 2〉 분석대상품목

구분	품목
곡물	두류, 맥류, 기타 곡물
축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낙농품), 기타 축산
과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채소, 특작	고추, 마늘, 양파, 과채류, 인삼, 기타 채소·특작

- TRQ : 곡물(대두, 감자), 축산물(낙농품, 꿀, 계란), 과일(오렌지), 특작(인삼, 참깨, 땅콩)
- 계절관세 : 오렌지, 포도
- 정부수매 정책, TRQ물량 국영무역 : 보리, 대두

#### 5. 파급영향 분석 결과

##### 〈생산액 감소〉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361억원 감소 추정
-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함.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원으로 추정
-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해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원임(이행기간 마지막 연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
- 이러한 결과는 협상 타결 이전에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추정한 연평균 8,700억원의 생산액 감소 예상보다 줄어든 것임.

# 한·미 FTA와 육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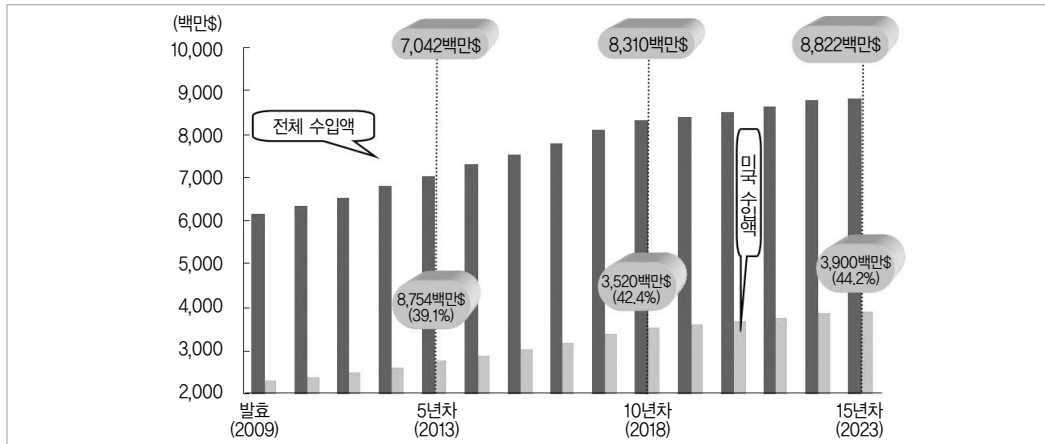
〈표 3〉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축산분야)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쇠고기	671	2,811	3,147	365	2,009	3,058
돼지고기	1,464	1,874	1,874	876	1,829	1,874
닭고기	488	996	996	302	823	996
유제품	416	594	594	378	539	594
기타	85	141	186	60	119	169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 주 :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그림 2〉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 주 : 총수입액은 가공품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품목의 수입액을 합계한 것으로 실제 농축산물 총수입액보다 적음.

## 〈수입액 변화〉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분석 대상품목 총수입액은 2013년 70억4천만 달러, 2018년 83억1천만 달러, 2023년 88억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산 비중은 각각 39.1%, 42.4%, 44.2%로 확대될 전망
- 한·미 FTA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 효과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간 55억5,600만 달러, 연평균 3억7,000만 달러로 추정

- 반면 한·미 FTA에 의한 수입선 전환 효과로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년간 21억4,900만 달러(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대미 농산물(분석 대상 주요 품목) 수입 증

〈표 4〉 2006년 농림축산물 수입 현황

구분	농림축산물 전체	분석 대상 품목
전체	108.7억 달러	58.0억 달러
미국산	25.8억 달러	18.3억 달러
미국산 비율	23.7%	31.6%

가로 인한 소비자 이익(수입 증가분에 가격 하락분을 곱한 것)은 연간 372억원(15년 간 총 5,580억원) 수준으로 추정

## 6. 품목별 파급영향

### 1) 쇠고기

-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03년 수입량은 29만4천톤이며, 이 중 미국산은 2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호주, 뉴질랜드산임.
-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됨. 주로 호주산이 미국산을 대체
-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어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액이 이행 초기년도인 2009년에 205억원, 5년차 671억원, 10년차 2,811억원, 최종년도인 2023년에 3,1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 돼지고기

-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벨기에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29%(6만1천톤, 2006년 기준)

-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7~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생산액이 이행 첫 해에 298억원, 2014년 1,791억원, 관세철폐시점인 2018년에 1,8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3) 닭고기

- 닭고기는 미국, 태국, 덴마크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음.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31.6%이며(AI 발생 이전인 2000~2002년 평균 점유율은 68%), 수입량은 4만톤으로 비중이 높음.
- 닭고기에 대한 생산액 감소효과는 이행 5년차(2013년)에 488억원, 관세철폐년도인 10년차(2018년)에 996억원으로 추정됨.

### 4) 유제품

- 유제품은 세계 50여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규모는 유장을 중심으로 6천5백만 달러(2006년 기준)로 수입시장에서 19.8% 점유.
-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미국산 유제품 수입 증가(주로 쿼터 제공)는 국내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2013년)에 416억원에서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2018년)에 594억원으로 추정됨. 